

[4~9]

문단 단위 해설 - #(가) 1문단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대중 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핵심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도르노가 대중 예술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 핵심은 '표준화'에 있습니다. 이것만 잘 잡았다면 1문단 전체가 재진술이 됩니다. 충분히 아도르노가 왜 대중 예술에 부정적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화제를 아도르노의 예술관으로 잡고 넘어갑시다.

#(가) 2문단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엔 '동일성'과 '비동일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단어 자체부터 굉장히 대립됩니다. 그리고 '동일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동일성'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역시 '표준화'라는 포인트랑 잘 연결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화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감 정보를 계속 줄이셔야 합니다.

#(가) 3문단

아도르노는 쇠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쇠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엔 '쇠베르크의 음악'이 등장합니다. '저항'이나 '계몽' 같이 처음 보는 내용이 등장하지만, 이 역시 '동일성'과 '비동일성'이라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건 '동일성'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 4문단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흔한 마무리 문단입니다. 심지어 한 번 더 '비동일성'이라는 포인트를 언급해주고 있네요.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머릿속에

표준화 · 동일성 · 직접적 저항, 계몽 ↔ 비동일성

정도는 정리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나) 1문단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첫 줄을 읽고 바로 (가)와의 공통 화제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만 표현한 것이니까 사회랑 상관이 없다는 말이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통 화제만 잡으면 큰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는 문단입니다.

#(나) 2문단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 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이번에는 첫 문장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미메시스’라는 낯선 키워드가 등장하고, 그 키워드의 정의가 제시됩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다시 말해~’라는 재진술 문장도 나오기 때문에 핵심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2문단이 ‘하지만’으로 시작되니까, 아도르노를 비판하는 맥락이라는 점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재진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한 문단입니다.

#(나) 3문단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다시 화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세잔의 예술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이 아도르노의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이 바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미메시스’가 나올 때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재진술을 잘 파악하면서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나) 4문단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나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과 함께 서술의 초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화’라는 핵심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와 연결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비동일성을 강조하던 아도르노가 오히려 동일화(동일성)를 주장한다고 비판합니다. 아도르노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네요.

문장 단위 해설 - #1문단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내용 이해하기

‘대중 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생각을 제시합니다. 문장은 조금 길지만, 역시나 천천히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대중 예술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 그 근거까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② 화제 파악하기

그렇다면 대중 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문이 전개되겠죠? 화제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하고 넘어갑시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지문의 흐름 파악하기

네, 아도르노가 대중 예술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그 포인트는 ‘표준화’이죠? 표준화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대중 예술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일 뿐이라는 뜻이에요. 앞 문장과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읽어 줍시다.

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일반적인 재진술 이해하기

‘표준화’라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읽어 주시면 됩니다. 표준화된 상품을 소비하니까, 그것을 감상하는 능력도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도 표준화되겠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일반적인 재진술 이해하기

네, 이번에도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개인의 정체성도 상품으로 전락한다는 이유는 ‘표준화·상품화’된 예술을 획일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이겠죠?

#(가) 2문단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지문의 흐름 파악하기

계속해서 아도르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정의 체크하기 - 단어 뜯기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정의가 제시되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니 동일/성입니다. 반대로 '하나'의 가치로의 환원 거부하는 것이니, 비/동일성입니다.

③ 내용 연결하기

그리고 여기서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정의를 잘 이해했다면 '비동일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강조하던 게 '표준화'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계속 재진술되던 포인트이기도 했죠? 그런데 '동일성'의 정의가 곧 '표준화'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동일성과 대조되는 '비동일성'을 강조하겠죠. '동일성 = 표준화'라는 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일반적인 재진술 파악하기

네, 당연합니다.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 = 상품화된 대중 예술 = 표준화 = 동일성'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도르노는 아름다운 것과 대비되는 추, 불쾌를 주장하겠군요. 이게 곧 '비동일성'과 같은 말이겠습니다. '아름다움 = 동일성'이고, 아름다움과 추하고 불쾌한 것이 반대되는 말이니깐요.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지문의 흐름 파악하기

딱 보고는 정확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아도르노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점만 잡고 넘어갑시다. 비동일성, 반표준화가 핵심이죠? 이 내용을 바로 뒤에서 재진술하고 있어요. 뒷 문장까지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면, 맥락상 같은 말이라고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지문의 흐름상, 이 문장의 내용은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 심화적 독해 태도

① 내용 이해하기

사실 미리 이해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를 전달한다는 것은, '표준화되지 않은 세계'를 전달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상품화·표준화되어 동일성을 갖는 것이 아닌, 예술가 개인이 직접 직시한 세계를 전달한다는 뜻이니깐요. 결국엔 또 '동일성 VS 비동일성'이라는 핵심을 반복하는 말입니다. 어휘력이나 문장 독해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일반적인 재진술 파악하기

네, 심화적 독해 태도에서 말한 포인트를 아주 쉽게 풀어서 써줍니다.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비정형화된 모습'이 곧 '비동일성'과 같은 말이죠? 예술의 비동일성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아주 친절해요.

#(가) 3문단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서술의 초점 잡기

이번에는 '전위 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이제는 대중 예술에서 전위 예술로 서술의 초점이 이동합니다. 서술의 초점을 '전위 예술'에 맞추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뒤에서는 왜 전위 예술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군요.

② 내용 연결하기

동일화에 저항하면서, 그것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동일화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비동일성'은 쉽게 떠올릴 수 있겠죠? 머릿속에는 계속 '비동일성'이 박힌 상태로 읽으셔야 합니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일반적인 재진술 이해하기

아주 쉽게 '동일성'과 '비동일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는 것입니다. 동일성을 부정하고 비동일성을 강조하는 아도르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항·계몽을 드러내지 않는 '전위 예술'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 4문단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당연하게 납득하기

네, 그렇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예술을 사회와 관련지어서 설명했죠? 대중 예술은 자본주의를 은폐한다는 것부터 계몽이나 저항도 모두 사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납득하고 넘어갑시다.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한다는 것도 간단합니다. 예술은 동일화에 저항해야 하니까 사회의 고통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일반적인 재진술 이해하기

아주 친절한 재진술 문장입니다. '비동일성'을 강조한다는 아도르노의 입장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고 있어야 합니다!

#(나) 1문단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제 파악하기

네, (나)에서도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동일 화제를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② 내용 연결하기

예술의 자율성은 곧 '비동일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겠죠? 예술의 비동일성이 곧 서로 다른 가치(표준화·동일화 X)를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앞에서 잡았던 핵심을 계속 끌고 오면서 읽어야 합니다.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일반적인 재진술 이해하기

네, 같은 포인트를 재진술하고 있죠? 사회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지문의 흐름 파악하기

어떤 점에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하는 것인지 설명하겠군요. 그리고 그 핵심은 비동일성이겠죠? 계속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비유적인 재진술 이해하기

조금 헛갈릴 수 있는 문장입니다. 다만 사회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만 잘 기억하면서 읽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사회와 관련이 없으므로 사회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아도르노 입장에서는 거리가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름다운 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상'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도르노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일 것입니다.

✓ 심화적 독해 태도

① 내용 연결하기

조금 더 생각하자면 '아름다운'이라는 워딩에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아도르노는 예술의 비동일성을 강조하며 불쾌하고 추한 예술을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이 등장한 맥락은 '아름다운 상품'인 대중 예술을 비판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세잔의 '사과'가 진정한 예술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아름다운 가상'이라는 워딩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세잔의 '사과'는 현실(사회)과 무관한 예술이니까 기본적으로 아도르노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법한 대상입니다. 그 포인트를

표준화 = 아름다운 상품 = 동일성



비동일성 = 불쾌하고 추한 예술

이라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나) 2문단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 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지문의 흐름 파악하기

갑자기 '미메시스'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화제와 관련된 내용 이겠죠? 아도르노의 미학과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 심화적 독해 태도

① 내용 연결하기, ② 화제 중심 읽기

그렇게 화제를 기억하고 읽어 보면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이라는 부분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도르노는 예술을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비동일성(동일성에 저항)으로 엮였죠.

즉, 세잔의 작품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표현한 것이니까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③ 내용 이해하기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 문단의 내용이 결국 (나) 1문단 마지막 문장을 반박하는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잔의 그림 또한 '아름다운 가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아도르노가 주장한 예술에 부합하는 작품입니다.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사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정의 체크하기, ② 내용 연결하기

미메시스의 정의를 제시합니다. 관념을 재현하는 것이 바로 미메시스입니다. 즉, '주관적 인상'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일반적인 재진술 이해하기

아주 중요한 재진술입니다. 심화적 독해 태도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장이네요.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 =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 예술가의 사유 재현'이 모두 같은 말임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세잔의 사과 또한 세계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뜻이네요.

만약 이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세잔의 사과가 세계(사회)로부터 유리된 것은 아니구나"라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4문단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서술의 초점 잡기

‘한편’과 함께 서술의 초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도르노의 미학이 왜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는 것일까요? 이 지점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만 읽고 아도르노의 입장을 비판하는 흐름이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는 것’은 결국 예술을 잘못 보고 있다는 뉘앙스니까요.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일반적인 재진술 이해하기

여기서 ‘동일화’를 보자마자 (가)의 핵심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것만 떠올리면 아주 쉽습니다. 결국 동일화를 반대하고 ‘비동일성’을 강조하던 아도르노가 다시 동일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판 포인트예요. 아도르노가 전위 예술을 긍정하던 것도 동일성에 저항하고 ‘비동일성’을 추구하는 것 때문이었죠?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일반적인 재진술 이해하기

네, ‘다양한 예술의 가치’를 없애는 것도 ‘동일성’과 같은 맥락이죠? (가)와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나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일반적인 재진술 이해하기

또 같은 말입니다. 비판 포인트는 ‘전위 예술’만 강조하는 것이 곧 동일화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위 예술 외에도 다른 미적 가치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위 예술만 강조하는 것은 비동일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동일화’이다. 이 핵심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일반적인 재진술 이해하기

이번에도 같은 말이네요.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을 ‘동일성·표준화’라는 점에서 비판합니다. 하지만 (나)의 핵심은 오히려 전위 예술만 강조하는 아도르노를 비판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위 예술 말고도 좋은 예술이 있어! 네가 싫어하는 대중 예술도 비동일성(사회에 저항, 표준화 X)으로 볼 수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비판 포인트를 반복하고 있어요.

#지문 총평

재진술이 중요한 인문&예술 지문의 특징을 아주 잘 반영한 지문입니다. 특히 ‘동일성’, ‘비동일성’이라는 포인트만 잘 잡았다면 문장이 너무 쉽게 읽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읽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지문이 난해했다면, 화제 중심 읽기와 재진술을 이해하는 능력(같은 말 찾기, 내용 연결하며 이해하기)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글의 구조가 22.11 헤겔의 미학 지문과 아주 유사합니다. (가)에서 이론을 제시하고 (나)에서 그 이론을 비판하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의 구성이나 읽는 방식이 딱 헤겔의 미학의 하위 호환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을 읽을 때 (가), (나)가 잘 엮여서 읽히지 않았다면 꼭 복습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4. 다음은 (가)와 (나)를 읽고 수행한 독서 활동지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 사실상 내용 전개 방식입니다. 지문의 흐름만 잘 파악했다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	(나)
글의 화제	아도르노의 예술관 ㉠	
서술 방식의 공통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함. ㉡	
서술 방식의 차이점	(가)는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함. ㉢	(나)는 (가)와 달리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이의 견해를 인용함. ㉣
서술된 내용 간의 관계	(가)에서 소개한 이론에 대해 (나)에서 의견을 밝히고 한계를 지적함. ㉤	

- ㉠ : 화제 그 자체를 선지에서 대놓고 제시합니다. 절대 고르면 안 되는 선지입니다.
- ㉡ : (가)에서는 ‘ 쇤베르크의 음악’, (나)에서는 ‘ 세잔의 사과’가 등장했습니다.

㉢ : (가)에서 개념이 ‘변화 과정’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디. 아도르노의 예술관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기만 했죠. 예술관이 변화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 : 베냐민의 의견이 인용되었죠. 약간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선지이네요.

㉤ : 네, (가)에서 아도르노의 관점을 소개하고, (나)에서 이를 비판하는 형식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 지문의 핵심을 묻는 문제입니다.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이 ‘표준화·동일화’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비동일성’을 강조하는 ‘전위 예술’은 긍정했죠. 동일성, 비동일성이라는 포인트는 꼭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의 정체성을 표준화·동일화한다고 보아야죠. ‘대립적 관계’라는 워딩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지만, 지문의 핵심 그 자체를 묻는 선지이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

→ 네, ‘표준화’라는 핵심을 그대로 묻고 있습니다. 상품이 표준화되니까 그것을 감상하는 능력도 표준화될 것이라 이해했습니다.

㉢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

→ 너무나 쉬운 선지입니다.. 이 내용이 표준화로 이어졌죠.

④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

→ 네, (가) 1문단 첫 번째 문장을 복사해둔 선지입니다.

⑤ 문화 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키는 것이 곧 표준화·동일화이죠? 핵심 그 자체를 묻는 선지입니다.

6.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⑤

결국 ㉠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 (나)에서 아도르노의 입장을 비판하는 포인트를 묻는 문제입니다.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키기 때문에 '주관의 재현'을 경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관'은 예술가의 주관이라는 점은 당연히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① 비정형적 형태뿐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되기 때문이다.

→ '정형성'이 재현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주관의 재현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비정형성'의 맥락에서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 아도르노는 재현의 주체가 감상자로 바뀐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감상자는 예술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③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 반대입니다.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한다는 점이 비판 포인트입니다.

④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 비정형적인 체험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비판점입니다. 비정형적인 체험'만' 한다는 게 문제이지, 비정형적인 체험이 왜곡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⑤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 정답은 쉽게 나옵니다. ㉠에서 말하는 주관이 예술가의 주관이라는 점만 잘 파악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고 했으니, 형태에 대한 체험만 강조된다는 말도 맞습니다.

해설 Comment

이런 문제가 어려워지면 21.09 행정 규제의 27번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이 문제가 헛갈렸거나 이 문제를 틀렸다면 핵심을 중심으로 선지를 판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7.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 ㉡의 비판 포인트만 잘 잡았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일화를 비판하던 아도르노가 오히려 전위 예술만을 긍정함으로써 동일화를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었죠? 이걸 머릿속에 넣고 선지를 읽어봅시다.

①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 대중 예술을 동일화로 비판하던 게 아도르노입니다. 예술의 동일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② 전위 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 비동일성이 동일성으로 귀결된다면 이것 또한 아도르노가 싫어하겠죠? 재반박은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재반박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③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 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무의미하다.

→ 대중 예술에서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아도르노가 대중 예술의 동일성을 비판하며 전위 예술만을 긍정할 필요도 없겠죠?

④ 전위 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므로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

→ 전위 예술이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도르노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아도르노가 애초에 비동일성과 동일성을 계속 구분하고, 비동일성을 중심으로 전위 예술을 긍정했습니다.

⑤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 예술의 본질이므로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 정답입니다. 전위 예술은 비동일성이라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전위 예술 긍정 = 동일화'라고 말하는 ㉠의 입장을 잘 비판하고 있습니다.

8. 다음은 학생이 미술관에 다녀와서 작성한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A)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B)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

- 아도르노는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중심으로 대중 예술을 비판하고 전위 예술을 긍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글쓴이는 이 구분을 바탕으로 전위 예술을 긍정하는 아도르노를 비판했구요. 두 입장의 관계를 잘 파악한 후에 감상문을 읽어 봅시다.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다. 기억에 남는 세 작품이 있었다.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자화상」이었지만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고, 제각각의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 불편한 감정만 느껴졌다. 두 번째 작품은 사회에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다. 세 번째 작품은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 오랫동안 기억에 잔상으로 남았다.

- 첫 번째 작품은 기괴한 모습으로 불편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즉, 비동일성과 불쾌하고 추한 예술을 긍정하는 아도르노의 입장과 같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이고 대량 복제됩니다. 또 상업 광고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대중 예술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도르노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겠군요. 추가로 사회에 저항하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라는 점에서 (나)의 글쓴이 입장과 유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색감과 조형미'라는 형식이 강조된 작품입니다.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이라는 점에서 (나)가 비판하는 아도르노의 입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① A :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 네,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이 곧 비동일성입니다.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가 비동일성이었으니까요. 또, 아도르노가 부조리를 은폐하는 대중 예술을 거부하고, 이 점에서 비동일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떠올려도 좋겠습니다.

② A :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 감각이 무뎠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대중 예술을 비판하는 아도르노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③ A :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조금은 헛갈릴 수 있는 선지입니다. 아도르노는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동일화'로 간주하며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④ B : 첫 번째 작품의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네, (나)의 글쓴이는 주관이 결여된 작품(지문에서는 사진)에서도 예술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합니다. 베나민의 말을 인용하면서, 전위 예술 외에도 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맥락에서 이 내용이 등장했어요.

⑤ B :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네, <보기> 해설에서 언급한 지점입니다. 대중 예술임에도 사회를 비판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나)의 글쓴이는 이를 긍정했구요.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 ㉠ ㉠ : 맞바꾸는
- ㉡ ㉡ : 동떨어진
- ㉢ ㉢ : 바라보는
- ㉣ ㉣ : 빼앗는다
- ㉤ ㉤ : 찾아내는

[10~13]

문단 단위 해설 - #1문단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일종의 예외로 유류분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산 처분의 자유를 억제하는 유류분권 정도로 화제를 잡으셨다면 잘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무상 처분자, 무상 취득자, 상속인, 피상속인 등 여러 용어가 제시되고 있으니 헛갈리지 않게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렇게 용어 잘 정리하고 유류분권을 행사하여 유류분을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금금 해하면서 다음 문단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Comment

- (1) 유류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당장은 '유류분'이라는 말 그대로 가져가시거나,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상속인들이 상속이 개시되고 받을 수 있는 것.' 정도로 파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설명될 테니 그때 파악해주시겠다고 생각하며 넘어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뒤에서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평가원이 생각하기에 이 지문을 읽는 데 꼭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니 1문단에서 파악한 만큼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 (2) 용어가 많이 제시되고 있어요. 무상 처분자, 무상 취득자, 상속인, 피상속인 등..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으시면 다음 내용 독해하실 때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법 지문은 특성상, 내용과 사례를 연결해서 생각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더 어려울 거예요. 꼭 제대로 잡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문단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류분의 정의를 설명해주는데, '무상 처분 행위'와 연결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하고 산정한 재산을 가지고 유류분을 설정하고 있으니 화제를 중심으로 읽었으면 내용이 잘 읽혔을 겁니다.

#3문단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상속인이 유류분권을 행사하여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구분해서 이해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 '이미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닌 경우', '재산 자체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재산 자체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정리해주지 않았다면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1문단 해설 Commen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 지문은 이렇게 상황과 연결하여 생각해줘야 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니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4문단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뉘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이해하기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앞에서부터 내용을 잘 끌고 오지 않았다면 내용이 독립적으로 느껴지셨을 겁니다. 3문단에서 설명된 케이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의 형식으로 문단을 시작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답을 찾겠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거네요.

#5문단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번에도 4문단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일 때 유류분 반환은 물건의 가치 중 유류분 부족액 만큼의 비율을 지분으로 가지는데, 이번에는 그 물건(무상 처분된 재산)의 시가(가치)가 변동되었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계속 잡으면서 내용을 파악해주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이때도 예외 상황이 등장하죠? 이 케이스 역시 놓치지 않고 잡아주셔야 해요. 구체적인 이해는 문장 해설에서 확인할게요.

문장 단위 해설 - #1문단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서술의 초점 잡기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이 문장과 관련되어 있겠죠? 문장을 이해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뒤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확인해봅시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제 파악하기

이 문장을 읽고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음.'을 떠올리셨어야 합니다. '그러나'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으니깐요. 물론 내용으로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하니, 재산 처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산 처분의 자유가 제한되는 무상 처분 행위 정도로 화제를 잡고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② 정의 체크하기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라는 말은 어렵지 않겠죠? 말 그대로 무상 처분을 한 사람과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입니다. 무상 처분 행위의 당사자입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일반적인 재진술 이해하기

무상 처분이 행해졌을 때, 그 결과가 반복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유류분권을 행사하면 무상 처분의 결과를 반복할 수 있나 봅니다. 즉, 무상 처분자가 살아있을 때 주었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류분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죠? 따라서 '유류분'을 돌려받을 무언가(재산)로 생각해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② 정의 체크하기 - 단어 뜯기

문장 자체가 앞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도 하지만, '유류분권'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주는 문장이기도 해요. 유류분/권은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이 유류분권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파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제와 계속 연결하여 내용을 읽어주세요.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지문의 흐름 파악하기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 즉, 상속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상 처분 행위를 행한 사람이고요. 잘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② 화제 중심 읽기

유류분권을 행사하면, 이미 행해진 무상 처분 행위의 결과가 반복될 수 있었죠? 무상 처분자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2문단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정의 체크하기

1문단에서 유류분권의 정의를 설명해줄 때, 유류분을 반환받을 권리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류분이 무엇인지는 설명을 안 해줬었는데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무상 처분된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입니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frac{1}{2}$ 만 보장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예시 이해하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인 경우를 예로 들어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유류분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절반이라고 잡아가는 건 당연하고, 원래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과 유류분이 다르다는 것까지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정의 체크하기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정의지만, 사실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의 정의와 연결하여 생각하세요! 유류분을 산정할 때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하고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을 고려하였으니까요. 아무튼,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 무상 처분이 이루어진 재산으로 체크하고 넘어

가면 되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내용 연결하기

무상 처분이 이루어진 재산까지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에 포함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류분 제도의 목적, 취지라고 이해하고 중요하게 체크해주셔야 해요.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한 것(=무상 처분 행위의 결과를 반복시키는 것 =유류분 산정시 무상 처분 행위가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것) 전부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되었겠습니다.

#3문단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조건 파악하기

피상속인이 이미 상속받은 이익이 있을 때, 유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 조건에 한정해서 내용을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② 내용 연결하기

우선, 유류분은 '원래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일부'였죠? 그리고 이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무상 처분이 이루어진 재산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유류분권이 작용하는 부분은 '무상 처분이 이루어진 재산'이었고요. 이를 고려하여 문장의 말을 살짝 바꾸면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유류분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는 겁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재진술 이해하기, ② 정의 체크하기

앞 문장에서 제시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상속받은 이익이 있다면 이는 유류분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제외하고 남은 것이 유류분 부족액이고, 이에 해당하는 만큼만 반환받을 수 있네요.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서술의 초점 잡기

앞에서 설명한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산은 돈으로 이루어지지만, '항상' 돈

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따라서 뒤에서 어떤 경우에 돈으로 반환되는지, 어떤 경우에 돈이 아닌 것으로 반환되는지를 구분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치는 '항상' 금액으로 계산된다고 잡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설명해주는지는 않았지만, 맥락상 말을 바꿔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칫하면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보고 가치 산정도 항상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당연하게 납득하기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면, 처분된 재산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네요. 돈으로 반환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니깐요. 재산 자체로 반환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 재산 자체를 상속받을 거라고 기대했을 테니까요!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예외 파악하기

사실 기출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수험생이라면 바로 앞에서 '원칙'을 설명해주었을 때 예외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원칙은 이러한데~ 이런 경우도 있어~ 같은 흐름이 자주 등장했었죠? 이번에도 그렇네요. 재산 자체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없으면, 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납득하기 어렵지 않죠?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예외 파악하기

무상 처분이 이루어진 재산이 돈이 아닐 때, 재산 자체로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의 또 다른 예외 상황입니다.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돈으로 반환할 수 있어요. 애초에 유류분 제도 자체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원하는 것을 굳이 막지 않겠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제시된 상황은 정리해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건(돈이 아닌 재산 자체)으로 반환하는 경우 - 재산 자체로 반환이 가능한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돈으로 반환하는 경우 - 재산 자체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돈으로 반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4문단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서술의 초점 잡기 - 물음의 형식

사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내용인데, 물음의 형식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서요. 그래도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뒤에 제시될 테니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갑시다.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조건 파악하기

앞에서 물음을 던진 상황과 관련되어 구체화된 것이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은 경우'인가 봅니다. 이런 경우에 재산 자체로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반환받아야 할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점 정도는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환받아야 할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만큼만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때는 돈으로 반환받아야 하는 걸까요? 계속 읽어봅시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정의 체크하기

앞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상 처분이 이루어진 재산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소유권을 나눠가지는 형태로 이루어지네요. 물음의 답이기도 합니다. 각각 지분을 나누어 가진다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5문단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서술의 초점 잡기

4문단에 이어 이번 문단도 물음의 형식으로 문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뒤에서 답을 찾아줘야겠죠?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제 중심 읽기, ② 내용 연결하기

우선, 유류분의 취지는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즉, 유류분은 상속 개시 때에 상속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변했을 때에도 상속 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하는 겁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려면, 유류분을 산정해야 하고, 또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무상 처분된 재산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예외 파악하기

또 예외 상황이 등장합니다. 지문의 흐름을 잘 끌고 오면서 정리하지 않았다면 정보량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셨을 겁니다. 무상 취득자의 노력으로 인해 물건의 가격이 변한 거면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상 취득자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납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상 취득자의 노력이 없었다면 상속 개시 당시 물건의 가격이 무상 취득 당시 가격과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예외 파악하기, ② 내용 연결하기

마지막 문장인데, 여기서도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네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인지 아닌지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분을 계산할 때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 당연하기도 해요. 지분 계산도 무상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무상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문 총평

유류분이라는 개념은 연계 교재에 실려있는 제재이기도 하고, 사설이나 LEET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개념이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치와 법을 선택한 학생이라면 더 친숙하게 다가왔을 거고요. 이런 개념을 몰랐더라도 지문에서의 설명이 불친절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1문단에서 화제를 잡고 읽으면서 연결하지 않았다면 정보량이 많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유류분이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를 잘 잡았다면 그래도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던 거니 해설을 따라가며 다시 사고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 : ②

①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유류분권의 정의가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했고, 유류분 자체가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②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 그 자체였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전부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일부에 한정된다니 적절하지 않네요. 정의를 잘 체크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겠지만, '유류분'의 일부에 한정되는 것을 떠올렸다면 잘못 생각해서 틀렸을 겁니다. 정의는 항상 잘 체크해주셔야 해요.

③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유류분의 정의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상속인이 원래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 중 법으로 보호받는 부분이 유류분이었어요. 상속이 이루어져야 유류분이 생기니 상속 개시 전에는 당연하게도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④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것은 '무상 처분이 이루어진 재산'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무상 처분이 아니니 당연히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겠습니다.

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 1문단에서 잡은 화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류분권'을 떠올렸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유류분을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무상 처분 행위의 결과를 번복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으니까요.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①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 물건의 개수는 고려하지 않기도 했고, 물건을 반환받을 때에는 물건의 시가와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만약 유류분 부족액이 물건의 시가보다 적다면 물건의 지분을 얻게 되지, 전부를 반환받지 않았어요.

②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물건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테니 당연히 상속인이 차지하는 지분도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선지에서는 상속인이 아니라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커진다고 반대로 적어놨네요.

③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한다.

→ 살짝 헷갈릴 수도 있을 선지입니다. 하지만, 예외 상황을 잘 체크했다면 해결할 수 있었어요. 무상 취득자가 물건 자체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반환해야 했습니다.

④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 지문에서 상황을 잘 정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건 자체로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물건 자체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돈으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원칙에 따라야 해요. 그런데, 선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없으니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와 '합의'가 다르다고 생각했다면 더 쉽게 선지를 판단할 수 있었어요. '요구'에 응해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를 생각했다면 유류분권자가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 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 액만큼의 돈을 반환받게 된다.

→ ‘지분’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어 무상 취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지분’을 나누어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반환받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1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②

㉠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우선, 유류분의 취지는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위함이었습니다. 상속 개시 때에 상속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변했을 때에도 상속 개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선지 확인하기

- ②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 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오답 선지 확인하기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④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설 Comment

최근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묻고 있는 포인트가 ‘능동적인 지문 이해’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문제였어요. 단순하게 눈알을 굴려서 내용 일치로 푸는 것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전 수능과 올해 6평 그리고 이번 9평에서도 중요하게 묻고 있으니, 잘 준비해서 올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④

— <보 기>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단,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보기> 문제는 항상 지문의 내용과 연결하여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보기>의 내용을 지문의 내용과 연결하여 정리하면 A 물건이 무상 처분된 재산, B 물건이 상속이 이루어진 재산이고, A+B가 상속인이 원래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자녀인 병 한 명만 존재합니다. 지문에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이 유류분이었어요. 이것도 함께 고려해줍니다. 또한, 물건의 시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때는 무상 취득자의 노력이 개입했는지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랐었죠? <보기>에서 언급해주고 있지 않으니 선지에서 나올 거예요.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줍니다.

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하다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는 상속 개시 당시 물건의 가치를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A 물건의 가치는 700이라고 생각해야겠어요. 그러면, 병이 원래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800(A\ 700 + B\ 100)$ 이고, 병의 유류분은 400입니다. (800의 절반) 그리고 병은 이미 B를 상속받았어요. 따라서 유류분 400에서 B의 가치 100을 제외하고 남은 300이 유류분 부족액입니다.

②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frac{3}{7}$ 지분이다.

→ ①번 선지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300이란 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A 물건의 가치는 700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물건의 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만큼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 $\frac{3}{7}$ 지분을 반환받을 수 있겠네요.

③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 무상 처분받은 재산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무상 처분 당시 시가를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병이 원래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400(A\ 300 + B\ 100)$ 입니다. 그러면 유류분은 절반인 200이 되고, B는 이미 상속받았으니 남은 100이 유류분 부족액이 되겠네요.

④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frac{1}{3}$ 지분이다.

→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인 것을 ③번 선지에서 확인했었죠? 여기까지만 생각했다면 A 물건의 가치를 300으로 설정하고 지분을 $\frac{1}{3}$ 이라고 착각하기 쉬웠습니다. 지문에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를 떠올리면서 지분은 $\frac{1}{7}$ (유류분 부족액 100 / A 물건의 가치 700)이라고 생각 해주셔야 합니다.

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 선지 앞에 있는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는지 여부'는 사실 함정입니다. 이를 파악하려면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을 물건 B인 것을 잡아주셔야 해요. 을의 노력이 유류분 부족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A 물건에 한정되었습니다. B 물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B 물건의 가치는 계속 100으로 변동이 없다고 <보기>에 나와 있기도 하죠?

해설 Comment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와 연결하여 묻는 문제였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보기>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그리고 정답인 ④번 선지의 논리가 지문에 나온 예외적인 상황을 이용한 점은 지금까지 평가원이 출제해온 방식과 같습니다. 다만, 문제를 풀기 위해 계산을 요구한 것은 조금은 생소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20.11 BIS 지문의 <보기> 문제나, 17.11 보험 지문 문제에서도 계산을 요구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때는 계산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이와 달리 이번에는 문제를 풀 때 계산의 영향이 조금 컸어요. (물론 단순한 사칙연산이긴 하지만요.) 크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수능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 가능하면 계산을 해서 해결하려 하는 것도 관찰겠습니다.

[14~17]

문단 단위 해설 - #1문단

인터넷 검색 엔진은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 준다. 웹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어렵지 않은 문단입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의 원리를 설명할 텐데, 그 핵심이 '중요도'와 '적합도'라는 점만 잘 파악한다면 됩니다. 중요도와 적합도가 핵심 구성 요소가 되겠죠? 이 두 개념을 중심으로 어떻게 웹페이지의 순서를 정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문단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웹 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인덱스란 단어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여기에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 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 등이 저장된다. 이때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기록된다.

'인덱스'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목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덱스에 '중요도'가 기록되는 점입니다. 즉, 인덱스가 등장하는 맥락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애는 중요도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3문단

중요도는 웹 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 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뉜다. 즉 A의 값이 4이고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연결된다면, A의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 페이지에는 각각 2가 보내진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요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링크 분석 기법'이 등장합니다. 예시와 함께 원리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링크된 페이지로부터 값을 받고, 다시 링크된 페이지로 그 값을 나누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천천히 읽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문단

하지만 두 웹 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에 댄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댄핑 인자는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진다. 댄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령 그 비율이 20%이면 댄핑 인자는 0.8이고 두 웹 페이지는 A로부터 각각 1.6을 받는다. 웹 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값이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이다. 웹 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 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한다.

여기서부터 많이들 어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웹 페이지가 받는 값(=페이지 A가 보내는 값 + 웹 페이지 A가 받는 값)에는 사실 '댄핑 인자'가 관여한다고 합니다. 일단 댄핑 인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파악하셔야 합니다. 링크 분석 기법의 구성 요소이니깐요. 그런데, 이 정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숨겨진 정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시와 함께 여러분들이 댄핑 인자의 정의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댄핑 인자는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입니다. 이것만 파악한다면 4문단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5문단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 페이지를 찾는다.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 페이지의 수, 웹 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 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적합도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비례/증감만 잘 이해하면서 체크한다면 무리 없이 독해할 수 있는 문단입니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문단이에요.

문장 단위 해설 - #1문단

인터넷 검색 엔진은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 준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제 파악하기

누가 봐도 '인터넷 검색 엔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줄 것 같습니다. 첫 문장만 보고 바로 화제를 대략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특정 기술(or 과학적 현상)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과학&기술 제재 지문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니깐요. 해당 제재의 독해 태도를 잘 갖추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웹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제 파악하기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웹페이지의 순서를 정하는지, 그것을 이해해야겠군요.

대표적인 항목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구성 요소 파악하기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중요도'와 '적합도'를 핵심 구성 요소로 잡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웹 페이지의 순서를 정할 때, '중요도'와 '적합도'를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인터넷 검색 엔진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당연히 이 두 요소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알아야겠죠?

해설 Comment

최근 과학&기술 지문의 출제 경향이 바로 1문단에서 화제와 구성 요소를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문단 자체는 독해에 큰 부담이 없어야 하고, 여기서 뒷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들을 챙겨간다는 느낌으로 읽어 주셔야 합니다. 이 지문에서는 화제와 핵심 구성 요소(중요도, 적합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꼭 생각하면서 넘어가셔야 해요!

#2문단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웹 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지문의 흐름 파악하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검색 엔진의 원리를 설명하려나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덱스'라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합니다. 이 키워드가 등장하는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해요. 결국엔 화제와 관련된 키워드라는 점은 꼭 챙겨갑시다.

인덱스란 단어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여기에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 페이지와 단어의 빈도 수 등이 저장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정의 체크하기

인덱스의 정의를 설명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검색에 필요한 요소들의 '목록' 그 자체입니다.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인덱스와 크게 다르지 않죠? 물론 일상에서의 의미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친절히 정의를 주니까요! 키워드의 정의를 읽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때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기록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지문의 흐름 파악하기, ② 군집화

라고 넘어가는 순간 여기서 머릿속에 느낌표가 딱 떠올라야 합니다! '인덱스'는 '중요도'를 기록해둔 목록입니다. 그런데 중요도는 인터넷 검색 엔진의 핵심 구성 요소였죠? 인덱스는 핵심 구성 요소와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둘을 같은 군집으로 묶어두고, 인덱스를 중요도와 함께 설명하겠다는 생각도 해봅시다.

③ 당연하게 납득하기

앞 문장과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 목록을 미리 작성해

둔다는 것 정도는 쉽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록이 미리 완성되어 있어야, 그것을 검색 엔진을 작동할 때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3문단

중요도는 웹 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정의 체크하기 - 단어 뜯기

중요도의 정의를 제시합니다. 내용은 간단하네요. 웹 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게 중요/도입니다.

② 지문의 흐름 파악하기

추가로 '링크 분석 기법'이 등장하는 흐름까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링크 분석 기법은 '중요도'를 측정하는 기술이니, 중요도를 중심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 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원리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링크 분석 기법으로 A의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A의 값은 중요도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것만 파악하면 쉽습니다. 그냥 다른 웹 페이지로부터 받는 (중요도) 값의 합이 A의 값이래요.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뉘진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원리 이해하기

네, A가 다른 웹 페이지로부터 값을 받았듯, A의 값도 A와 연결된(A가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로 '균등하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즉 A의 값이 4이고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연결된다면, A의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 페이지에는 각각 2가 보내진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예시 이해하기

앞에서 값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문장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어떤 식으로 균등히 나뉘는지 설명해줍니다.

A의 값이 4이고 A와 연결된 웹 페이지가 두 개(편의상 B, C라고 할게요)라면, A의 값이 B와 C 두 군데에 각각 2씩 나누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만 잘 읽어도 링크 분석 기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문단

하지만 두 웹 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에 댄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지문의 흐름 파악하기

여기서부터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제시된 원리에 추가적인 요소가 하나 더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댄핑 인자'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받는 '중요도 값'에 댄핑 인자를 곱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댄핑 인자로 인한 차이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댄핑 인자는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진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정의 체크하기

댄핑 인자에 대한 설명이 제시됩니다. '다른 웹페이지로의 이동 유무'를 반영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른 웹 페이지로의 이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미만의 값이라고 하니, 0.XX로 표시되는 값이겠군요.

댄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속성 체크하기

네, 그렇다고 합니다. 모든 링크에 균등하게 값이 분배되니, 그 과정에서 개입하는 댄핑 인자도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가령 그 비율이 20%이면 댄핑 인자는 0.8이고 두 웹 페이지는 A로부터 각각 1.6을 받는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정의 체크하기 - 숨겨진 정의

상당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그 비율'은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댄핑 인자가 0.8이라고 합니다. 즉, 댄핑 인자의 정의는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인 것이죠.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이니까 이동하는 비율은 80%가 됩니다. 이것을 1미만의 수치로 표현한 것이 댄핑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때 댄핑 인자의 값이 0.8이 되는 것입니다.

댄핑 인자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미시 독해를 잘 해야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네요. 또 이 문장의 내용이 정답 선지로 직결된다는 점도 한뼘합니다.

② 예시 이해하기

예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균등하게 분배되는 값(2)에 댄핑 인자(0.8)가 곱해져 각각 1.6씩 분배된다는 말이네요.

웹 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 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당연하게 납득하기

네, 당연하겠죠? 어떤 링크가 사라지거나 더해질 수 있으므로, 당연히 중요도 또한 그때마다 갱신될 것입니다. 링크 분석 기법을 중요도와 연결해서 읽었다면 간단하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5문단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 페이지를 찾는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당연히 납득하기

당연히 검색을 하면 인덱스에서 찾겠죠? 인덱스가 '목록'이었으니까요. 이 정도는 편안하게 읽고 넘어가 줍시다.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 페이지의 수, 웹 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지문의 흐름 파악하기, ② 서술의 초점 잡기

이제 '적합도'에 대해서 설명하려나 봅니다. 서술의 초점이 '정확도'에서 '적합도'로 옮겨 가고 있어요.

③ 정의 체크하기

적합도의 정의 자체는 쉽습니다. 말 그대로 검색한 웹 사이트가 '적합한지' 따지는 것이 적합/도이죠? 그리고 '식'을 통해 반영하니까 수치(정도)로 표현될 것이겠군요.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비례/증감 관계 이해하기

비례/증감 관계가 제시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검색을 할 때, 검색한 단어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적합하겠죠. 또 내가 검색한 단어가 다른 웹 페이지에는 잘 없고 특정 웹 페이지에만 있다면 역시나 그 웹 페이지는 적합도가 높을 것입니다.

'글자 수'도 적합도의 정의만 잘 연결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합도는 글자 수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글

자 수가 적을수록 적합한 페이지가 됩니다. 이것 역시 당연하겠죠?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만 딱 등장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정리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합도 ↑ - 검색어 ↑ - 다른 웹 페이지 수 ↓
- 현재 웹 페이지 수의 글자 수 ↓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 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제 중심 읽기

네, 화제를 한 번 더 재진술하는 문장입니다. 검색 엔진의 원리를 이해할 때 중요하게 다루었던 게 '중요도'와 '적합도'이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웹 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한다! 이게 곧 인터넷 검색 엔진의 원리이잖아요.

#지문 총평

최근 기술 지문의 출제 경향을 잘 반영한 지문입니다. 1문단에서 화제를 주고, 각 문단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명시적으로 제시해서 구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4문단에서 '댐핑 인자'의 정의를 파악할 때 상당한 미시 독해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 점이 가장 킬링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14번의 정답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이 포인트를 묻는 14번 문제가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므로 꼭 문장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1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②

- 인터넷 검색 엔진의 원리를 물어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요했던 개념들이 '정확도', '인덱스', '댐핑 인자', '적합도'입니다. 이 개념들은 머릿속에 꼭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만 떠올리고 선지 판단하러 가봅시다.

①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된다.

→ 인덱스는 검색어 입력 전에 '미리' 작성되어 있습니다. 인덱스는 목록인데, 당연히 목록이 미리 작성되어 있어야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있겠죠? 지문 해설에서도 당연하게 납득하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선지 포인트 : 납득해야 할 세부 정보

②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가 커진다.

→ 댐핑 인자의 정의를 잘 파악했는지 묻는 선지입니다. 댐핑 인자는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당연하게도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는 커질 것입니다.

#선지 포인트 : 숨겨진 정의 파악하기

③ 링크 분석 기법은 웹 페이지 사이의 링크를 분석하여 웹 페이지의 적합도를 값으로 나타낸다.

→ 링크 분석 기법은 기본적으로 '정확도'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니깐요. 지문의 흐름을 잘 파악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범주가 다른 정보를 연결하여 그럴듯한 오답 선지를 자주 구성하니, 이 선지를 골랐다면 꼭 이런 유형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 포인트 : 지문의 흐름 파악하기

④ 웹 페이지의 중요도는 다른 웹 페이지에서 받는 값과 다른 웹 페이지에 나눠 주는 값의 합이다.

→ 이 역시 미시 독해를 잘 해야 쉽게 풀 수 있는 선지입니다. 중요도는 다른 웹 페이지에서 받는 값에 댐핑 인자를 곱한 값들의 합이죠. 3. 4문단에서 말하는 웹 페이지의 값이 '중요도'라는 것을 파악해야 정확히 풀 수 있는 선지입니다.

#선지 포인트 : 누락된 문장 성분(중요도), 지문의 흐름 파악하기

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검색한 결과를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낸다.

→ 화제를 묻는 선지입니다.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를 고려하여 웹 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합니다. 1 문단에서부터 잡았던 화제이기도 하고, 5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한 번 더 강조하기도 한 포인트입니다.

#선지 포인트 : 화제 중심 읽기

15. ㉠, ㉡을 고려하여 검색 결과에서 웹 페이지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⑤

㉠ 중요도, ㉡ 적합도

- 중요도와 적합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요도에는 링크 분석 기법, 댐핑 인자가 관련되었고 적합도는 정리해둔 비례/증감 관계가 있었습니다. 정의는 물론 관련된 핵심 포인트 정도는 생각하면서 선지로 들어가봅시다.

①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 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하여 ㉠을 높인다.

→ 웹 페이지를 많이 나열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검색어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검색어의 수를 늘려서 올라가는 수치는 적합도입니다.

②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웹 페이지에 많이 포함시켜 ㉠을 높인다.

→ 조금 헛갈릴 수 있는 선지입니다. 정의를 집요하게 묻는 선지입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웹 사이트에서 '연결하는 링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웹 사이트를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이 많아 야 합니다. 정확도는 '해당 웹 페이지를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들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③ 알파벳순으로 앞 순서에 있는 단어들을 웹 페이지 첫 부분에 많이 포함시켜 ㉡을 높인다.

→ 알파벳순 앞 순서는 전혀 무관합니다... 적합도와 관련된 비례/증감 관계만 잘 읽었다면 아주 쉽게 판단 할 수 있습니다.

④ 다른 많은 웹 페이지들이 링크하도록 웹 페이지에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전체 글자 수를 많게 하여 ㉢을 높인다.

→ 전체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늘어나면 ㉢은 떨어집니다.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보다 '적어야' 적합도가 높아지기 때문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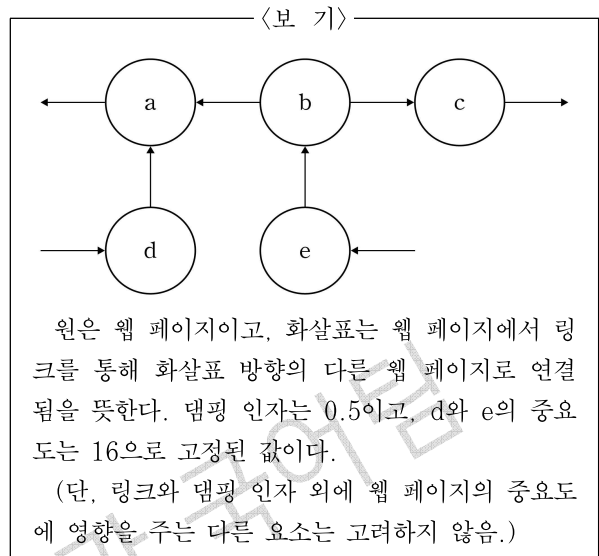
⑤ 다른 웹 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을 높인다.

→ 네, 특정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사이트가 적을 수록 적합도는 올라갑니다. 다른 웹 페이지에서 다루 지 않는 주제,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면 적합도는 올라가겠죠? 특정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사이트가 적다는 뜻이니까요.

16. <보기>는 웹 페이지들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정답 : ㉠



-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랜만에 <보기>에서 지문의 내용을 응용하도록 만든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일단 하나씩 봅시다. d, e의 중요도는 16으로 고정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e에만 연결된 b의 중요도는 8이겠군요. 여기까지만 파악하고 나머지 내용은 선지를 해설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① a의 중요도는 16이다.

→ 조심해야 하는 선지입니다. a의 중요도는 d와 b로부터 받는 값의 합입니다. 일단 a가 d로부터 받는 중요도 값은 8이에요. $16(d의 중요도) \times 0.5(댄핑 인자) = 8$ 이니까요.

그런데 b로부터 받는 값이 다릅니다. b는 a와 c, 두 개를 링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b로부터 받는 값은 2가 됩니다. b의 중요도는 8이지만 b는 두 개의 웹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중요도를 균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즉, b의 중요도를 반으로 쪼개야 합니다. 그러면 4가 되는데, 여기에 댄핑 인자 0.5를 곱해야 a가 받는 값이 됩니다. 그럼 a의 중요도 값은 $8 + 2 = 10$ 이 됩니다.

② a가 b와 d로부터 각각 받는 값은 같다.

→ ①번 선지를 정확히 판단했다면 이 선지까지 바로 뚫립니다. ①번 선지가 일종의 힌트입니다. b로부터 받는 값은 2, d로부터 받는 값은 8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③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b와 c의 중요도는 같다.

→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진다면, a와 c의 중요도가 달라집니다. a가 사라지면, b는 c에만 링크가 된 상태이므로 b의 중요도에서 2를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b가 a, c 두 개와 링크되어 있을 땐 중요도를 균등하게 나눠야 했죠? 그런데 a와의 링크가 끊어지면 이제 균등하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c의 중요도는 4가 됩니다.

하지만 b의 중요도는 8이죠?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더라도 b의 중요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b를 링크한 웹 사이트는 e 하나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의 중요도는 8, c의 중요도는 4이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④ e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b의 중요도는 6이다.

→ e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된다면, e와 연결된 b의 중요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래는 e의 중요도인 16에 댄핑 인자 0.5만 곱하면 되었으나, a와의 링크가 추가되면 e의 중요도를 a와 b가 균등하게 반씩 나누어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b의 중요도는 8에 0.5를 곱한 4가 되겠습니다.

⑤ e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c의 중요도는 5이다.

→ 굉장히 판단이 복잡한 선지입니다. 기존의 c의 중요도 값은 2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e와의 링크가 추가된다면 당연히 중요도는 커질텐데, 이것이 5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복잡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일단 e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b의 중요도도 변화합니다. 기존에는 e에서 b로의 링크 하나만 존재했어요. 그러므로 b의 중요도는 $16 \times 0.5 = 8$ 이었습니다. 하지만 c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b는 16을 균등하게 8, 8로 나누어서 값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b의 중요도 값은 $8(16/2) \times 0.5 = 4$ 가 됩니다.

그렇다면 b로부터 받는 c의 값 또한 변하겠죠? b는 a, c 두 가지 웹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a, c 두 사이트가 값을 받을 때 역시 b의 중요도 값을

두 가지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받는 것이죠. 그럼 b로부터 받는 c의 중요도 값은, $2(4/2) \times 0.5 = 1$ 이 됩니다.

이제 다시 e로부터 받는 c의 중요도 값을 계산해야 합니다 e로부터 받는 c의 중요도 값은 b와 마찬가지로 4입니다. $8(16/2) \times 0.5 = 4$ 이니까요.

따라서 c의 값은 5가 됩니다. 정답입니다.

17.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 : ㉠

- ①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은 자정이 넘었다.
- ② 그들은 큰 산을 넘어서 마을에 도착했다.
- ③ 철새들이 국경선을 넘어서 훨훨 날아갔다.
- ④ 선수들은 가까스로 어려운 고비를 넘었다.
- ⑤ 갑자기 냄비에서 물이 넘어서 좀 당황했다.

[18~21]

<보기>를 통해 작품의 내용을 짚고 넘어 갑시다!

〈보 기〉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

주인공인 '정수정'은 영웅이자 효녀이고, 장씨 가문의 여성이에요. 역할이 세 가지나 있네요. 이 역할에 다 충실하는 아주 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정수정'이란 인물에 집중해서 읽어 봅시다.

이때 예부 상서 진량을 황제 가장 좋아하시니 진량이 의기양양하고 교만 방자한지라, 정 상서 일찍 진량이 소인인 줄 알고 황제께 간하되 황제 중시 그렇지 않다 하심에, 진량이 이 일을 알고 정 상서를 해하려 하더라. 차시 황제의 탄생일이 되었는지라, 마침 정 상서 병이 있어 상소하고 참석지 못하였더니 황제 만 조백관더러 묻기를,

“정 상서의 병이 어떠하더뇨?”

하시고 사관을 보내려 하시니 진량이 나아가 왈,

“정 상서는 간악한 사람이라 그 병세를 신이 자세히 아옵나이다. 상서가 요사이 황제께 조회하는 것이 다르웁고 신이 상서의 집에 가오니 상서의 말이 수상하웁더니 오늘 조회에 불참하오니 반드시 무슨 생각 있는 줄 아나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주요 인물로 '정 상서'와 '진량'이 등장합니다. '정 상서'는 '진량'이 소인임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를 '황제'에게 말하지만 무시당하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진량'이 '정 상서'를 모함하게 됩니다. 이제 '정 상서'가 어떤 일을 당할지에 주목해 봅시다.

*여기서 '소인'은 그릇이 작은 사람, 나쁜 사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② 인물의 심리·태도 이해하기

'진량'은 의기양양하고 매우 교만한 인물이에요. 자신

이 교만하다고 황제에게 말한 '정 상서'를 바로 모함하는 인물이죠. 그에 비해 '정 상서'는 '진량'이 소인임을 알고 황제에게 말하는 충신입니다.

황제 대경하여 처벌하려 하시거늘 중관이 아뢰길, “정 상서의 죄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별로 다스리오리까?”

황제 듣지 않고 절강에 귀양을 정하시니 중관이 명을 듣고 정 상서의 집에 나아가 황명을 전하니, 상서 크게 울며,

“내 일찍 국은을 갚을까 하였더니 소인의 참언을 입어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오.”

하고 칼을 빼어 서안을 치며 말하기를,

“소인을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입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하며 눈물을 흘리니 부인은 애원 통도하고 친척 노복이 다 서러워하더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황제는 '진량'의 모함을 듣고 '정 상서'를 벌하려 해요. 중관은 '정 상서'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황제는 무시하고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억울한 상황이에요. '정 상서'는 매우 슬퍼하고 주위 인물들도 슬퍼하고 있네요.

② 사건 이해하기

'진량'의 모함 때문에 '정 상서'는 귀양을 가게 됩니다. 충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보기>에서 나온 '정수정'이란 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관이 재촉 왈,

“황명이 급하오니 수이 행장 차리소서.”

정 상서가 일변 행장을 준비하여 부인더러 이르기를, “나는 천만 의외에 귀양 가거니와 부인은 여아를 데리고 조상 제사를 받들어 길이 무탈하소서.”

하고 즉시 발행할새, 모녀 가슴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정 상서 여러 날 만에 귀양지에 이르니 절강 만호가 관사를 깨끗이 하고 정 상서를 머물게 하더라.

차설. 정 상서 적거한 후로 슬픔을 머금고 세월을

보내더니 석 달 만에 홀연 득병하여 마침내 세상을 영결하니 절강 만호 슬퍼 놀라 황제께 장계로 보고하고 부인에게 기별하니라. 이때 부인과 정수정이 정 상서를 이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일일 문득 시비가 고하되,

“절장에서 사람이 왔나이다.”

하거늘 부인이 급히 불러 물으니 답하기를,

“정 상서께서 지난달 보름께 별세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부인과 정수정 이 말을 듣고 한마디 소리를 내며 혼절하니 시비 등이 창황망조하여 약물로 급히 구함에 오랜 후에야 숨을 내쉬며 눈물이 비 오듯 하더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결국 ‘정 상서’는 귀양을 가게 되고 석 달 만에 죽어 버리고 맙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이 소식을 들은 ‘부인’과 ‘정수정’은 매우 슬퍼해요. 드디어 ‘정수정’이 등장합니다. <보기>에서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라고 제시되었습니다. 그럼 ‘정 상서’의 딸이 바로 ‘정수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수정’이 ‘정 상서’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장을 한 정수정은 장원 급제한 뒤 북적을 물리친다. 이후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정 혼자인 장연과 혼인한다. 호왕이 침공하자 정수정은 대원수, 장연은 중군장으로 출전한다.

대원수 호왕에 승리하여 황성으로 향할새 강서 지경에 이르러 한복더러 묻기를,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수십 리는 되나이다.”

대원수 분부하되 철기를 거느려 결박하여 오라 하니 한복 등이 들고 나는 뜻이 가 바로 내실로 들어갈새 진량이 대경하여 연고를 묻거늘 한복이 칼을 들어 시종을 베고 군사를 호령하여 진량을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대원수께 고하되, 대원수 이에 진량을 잡아 들어 장하에 꿰리고 노기 대발하여 부친 모해하던 죄상을 문초하니 진량이 다만 살려 달라 빌거늘, 대원수 무사를 호령하여 빨리 베라 하니 이윽고 무사 진량의 머리를 드리거늘, 대원수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더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정수정’은 남장을 해 국가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자 대원수로 출전하게 되네요.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진량’을 찾아 가게 돼요.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죠. 그렇게 ‘진량’을 벌하는 ‘정수정’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예상했던 대로네요. 부친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② 숨겨진 사건 이해하기

‘정수정’은 ‘진량’의 귀양지를 묻고 있어요. ‘진량’이 현재 귀양을 간 상황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어 귀양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물은 교만한 인물이었어요. 다른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간악한 짓을 해서 벌을 받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황제께 첩서를 올려 승전을 알리고, 중군장 장연을 기주로 보내고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여 여러 날 만에 궤하에 이르니, 황제 백관을 거느려 대원수를 맞아 치하하시고 좌각로 평복후를 봉하시니 대원수 사은하고 청주로 가니라.

차설. 장연이 기주에 이르러 모친 태부인 뵈옵고 전후사연을 고하되 태부인이 듣고 통분 왈,

“너를 길러 벼슬이 공후에 이르니 기쁨이 측량없던 차에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옥을 보고 돌아올 줄 어찌 알았으리오.”

장연의 다른 부인들인 원 부인과 공주가 아뢰기를,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요,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 는 노하지 마소서.”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찰을 주어 청주로 보내니라. 이때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하더니 시비 문득 아뢰되 기주 시녀 왔다 하거늘 불러들여 서찰을 본즉 태부인의 서찰이라. 기뻐 즉시 회답하여 보내고 익일에 행장 차려 갈새, 홍군 취삼으로 봉관 적의에 명월패 차고 수십 시녀를 거느려 성 밖에 나오니,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하여 기주에 이르러 태부인에게 예하고 두 부인으로 더불어 예필 좌정함에, 태부인이 지난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정수정 또한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더라.

- 작자 미상, 「정수정전」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정수정’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게 됩니다. 국가적 위기를 해결한 인물이에요. 그렇게 돌아온 ‘정수정’은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며 부녀자로서의 덕목 또한 지키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게 된 ‘정수정’이에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 부친의 원수를 갚고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킨 아주 유능한 인물입니다.

② 숨겨진 사건 이해하기

‘태부인’이 전후사연을 듣고 노했습니다. 밑의 서술을 보면 ‘정수정’이 전쟁 중에 ‘장연’을 징계했던 일이 있었나 봐요. 이를 듣고 ‘태부인’이 노했지만 주위 인물들이 ‘정수정’도 대의를 아니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파악하기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었어요.

#지문 총평

인물이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각 인물들을 잘 처리하셨어야 하고 중반부부터 등장하는 ‘정수정’이라는 메인 인물에 주목하셨어야 해요. <보기>에서 ‘정수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니 이를 바탕으로 중심 인물을 잘 파악하셨어야 합니다.

18.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① ‘황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정 상서를 처벌하기로 결심한다.

→ 네, ‘황제’는 자신이 좋아하던 ‘진량’이 정 상서를 모함하는 말을 듣고 정 상서를 처벌하기로 결심합니다.

② ‘중관’은 정 상서를 처벌하기에는 그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황제에게 주장한다.

→ ‘중관’은 정 상서에겐 죄가 없다며 황제에게 처벌하지 말라고 주장했었어요.

③ ‘정 상서’는 자신이 소인의 참언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 네, ‘정 상서’는 자신이 소인의 참언, 즉 진량의 참언 때문에 억울하게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④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량의 귀양지로 가서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다.

→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량의 귀양지로 가서 진량을 결박해 본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리는 것은 대원수가 한 것이지 ‘한복’이 한 것이 아니에요.

⑤ ‘원 부인’과 ‘공주’는 정수정이 도리를 지켜 원만하게 지낼 것임을 내세워 태부인을 진정시킨다.

→ 네, ‘원 부인’과 ‘공주’는 정수정이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라며 태부인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1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②

- ㉠ 마침 정 상서 병이 있어 상소하고 참석지 못하였더니
- ㉡ 황명이 급하오니 수이 행장 차리소서
- ㉢ 정 상서께서 지난달 보름께 별세하셨나이다
- ㉣ 대원수 호왕에 승리하여
- ㉤ 서찰을 본즉 태부인의 서찰이라

① ㉠으로 진량에게는 정 상서를 모함할 기회가 생긴다.

→ 네, 정 상서가 병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틈을 타 진량이 모함을 하게 됩니다.

② ㉡으로 정 상서는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다.

→ 이 부분은 빨리 귀양을 가야 하니 행장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양을 간 이후 정 상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 오죠. 이 죽음을 비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전해질 것을 짐작하지는 않죠. 이 말이 맞으려면 정 상서가 자신이 죽을 것을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은 없죠.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㉔으로 부인과 정수정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게 된다.

→ 네, 부인과 정수정은 정 상서가 죽은 것을 알고 '한 마디 소리를 내며 혼절'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④ ㉔으로 정수정은 황제로부터 노고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된다.

→ 네, 정수정은 대원수로 출전해 호왕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수정은 복귀를 하게 되고 황제는 정수정을 극진히 대우합니다. '황제 백관을 거느려 대원수를 맞아 치하하시고 좌각로 평복후를 봉하'는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⑤ ㉔으로 정수정은 걱정을 덜며 떠날 채비를 하게 된다.

→ 정수정은 태부인의 서찰을 보고 기뻐 즉시 회답하고 익일에 행장을 차려서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걱정을 덜며 떠날 채비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20. ㉔, 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㉔

㉔ 장계, ㉔ 첩서

- ㉔는 정 상서가 죽음을 알리는 것이고, ㉔는 황제에게 승전했음을 알리기 위해 사용된 것이에요. 간단한 문제였어요.

정답 선지 확인하기

㉔ ㉔는 호왕과 벌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오답 선지 확인하기

㉔ ㉔는 자신의 귀양살이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㉔ ㉔는 황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㉔ ㉔는 황제를 직접 만나 보고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㉔ ㉔와 ㉔에 담긴 소식은 황제 외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㉔

<보 기>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

㉔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묻는 '대원수'의 발언에서, '진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 주려는 '정수정'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네, '정수정'은 '진량'을 찾기 위해 귀양지를 묻고 있죠. 그렇게 '진량'을 데려와 벌하게 됩니다. 부친이 누명을 뒤집어 쓴 한을 풀어주려는 효녀로서의 면모가 잘 나타납니다.

㉔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정수정'이 효녀로서의 소임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죽은 부친의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㉔ '장연'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육을 보고 돌아'왔다고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함을 알 수 있군.

→ '태부인'은 '장연'이 '정수정'에게 장계를 먹은 것에 통분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육을 보고 돌아'왔다고 하고 있죠.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는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함을 알 수 있군.

→ '정수정'은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해 하고 있어요. 이는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을 경시한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것이예요.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⑤ '한복'의 '호위'를 받으며 기주로 가서 '태부인께 예'하는 '정수정'의 모습에서,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을 알 수 있군.

→ 대원수로 출전해 승전함으로써 '정수정'은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태부인께 예'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역할 또한 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기출의 파급효과 국어팀

[22~27]

(가)와 (나)에 대한 <보기>가 제시되어 있어요. <보기> 먼저 보고 갑시다.

— <보 기> —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밖'과 '안'을 대비하여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 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길에 대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가)와 (나) 작품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의 화자는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자연과 교감한다고 합니다. (나)에서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해 깨달음을 주는 작품이라고 해요.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읽어봅시다.

(가)

아아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인기척 끊이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그 화안한 골 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머언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② 시적 상황 파악하기

화자는 지금 '첩첩한 산길'에 와 있습니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겠죠? 이 공간은 인기척도 끊긴 적막한 곳이에요. 화자는 여기서 생각에 잠기어 있습니다.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나는 종종히 외롭도 있고 왔더니라

살다가 오래여 작은 장목들 흰 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風雪)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훌 훌 훌 창천(蒼天)에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화자는 '첩첩한 산길'에서 '백화'의 모습, '장목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연 풍경에 대한 묘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화자는 이런 자연 속에서 '외롭'도 잊게 됩니다. 자연은 화자에게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 심화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이해하기

화자는 '백화' 속을 거닐면서, '물소리(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외롭(외로움)을 잊고 있어요. 이 부분이 <보기>에서 말했듯이 자연과 화자가 정서적으로 교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썩아—한종일내—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안은 바람소리 …… 구월 고운 낙엽은 날리어 푸른 담(潭) 위에 호르르르 낙화 같이 지더니라.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이제 나의 이 오늘밤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쓸리며 다시 꽃과 같이 난만(爛漫)하여라.

-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계속 자연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 '검푸른 밤하늘' 등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 심화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이해하기

화자는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의 별들을 본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이것은 화자가 실제로 본 자연

풍경입니다. 그리고 '산장'에서 '나의 하늘의 별'을 보게 됩니다. 객관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늘에 있는 별로 인식하니까요. '나의 하늘에 별들이니까, 화자가 주관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보기>에도 이러한 내용이 제시되었어요. 화자와 자연이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대상 파악하기

화자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②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③ 시적 상황 파악하기

'사람들'은 '길'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길'은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습니다. 낭패시킬 때도 있고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고 해요. 화자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고 있다고 '길'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② 시적 상황 파악하기

'길'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성질을 갖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길'이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길'은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가서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하는 존재인데 말이죠. 계속 '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신경림, 「길」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② 시적 상황 파악하기

'길'은 자신의 성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주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주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비로소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기>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길'에 대해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보기〉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이 수필에서 글쓴이는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이라면,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로 그려진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 작품에선 두 가지 이야기가 제시된다고 합니다. 슬픈 이야기와 유쾌한 이야기가 제시된다고 해요. 이 두 이야기를 중심으로 읽어 봅시다.

(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 봅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 나는 이제 이 진진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하였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꽤 키가 호리 낭창하였습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글쓴이는 ‘당신께서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를 들여다 보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글쓴이는 ‘노란 슬픔’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당신께 ‘노란 슬픔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자 합니다. 글쓴이가 슬픔을 느끼게 된 이유가 이 이야기에 제시되었죠? <보기>에서 말했던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중략)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총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겨서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제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비겨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 갑니다. 그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의 병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의 보내 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 놓아야 하겠습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②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글쓴이가 사랑했던 ‘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글쓴이는 이 사람을 매우 아름다워하고 있어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견주었지만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을 만큼 말이에요. 그 후 친구가 ‘수선’을 추천했고, 글쓴이는 그에 동의해요.

하지만 이 처녀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가슴의 병’을 얻고 맙니다. 이제 왜 글쓴이가 당신이 보내 주신 ‘수선화’를 보고 슬픔을 느꼈는지 알 수 있어요. 글쓴이가 사랑하던 그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밤이 아직 쌀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새 헹갠이나 언어나다 알록달록한 각지나 만들면서 이 낡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옷간에도 맏옷간에도 다락방에도 허탕에도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 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켜듯하니 불을 켜 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달 밝은 마을의 행길 어테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밤물을 먹고 도야지 깃을 들썩이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걷는다고 별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옹패기에 찰락찰락 물을 길어 오며 별 같은 이야기를 자갈자갈 하는 밤입니다. 새악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오노라고 달을 보고 웃어 가며 살팽이같이 여우같이 부잣집으로 가서는 날쌔기도 하게 기왓골의 기왓장을 벗겨 오고 부엌의 솥뚜껑을 들어 오고 곱새담의 짚날을 뽑아 오고……. 이렇게 허물없는 즐거움 속에 끼득깨득 하는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슨 암짐승이 되어 버리는 밤입니다.

- 백석, 「편지」 -

* 육보름: 정월 대보름 다음날.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②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이번에는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기>에서 말했던 두 번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 말했던 '노란 슬픔의 이야기'와는 상반된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유쾌한 축제 이야기네요. 처녀들이 기왓골의 기왓장을 훔치는 등의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분위기가 주를 이루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문 총평

전체적으로 작품의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의 박두진 시인은 몇 번 출제된 시인이예요. 작품의 주제도 확실히 잡혔고요. (나) 작품은 EBS 연계 지문이었어요. 연계인 것을 몰랐더라도 해도 '길'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만 잘 파악하셨으면 됩니다. (다) 작품은 간단한 수필이죠. 편지 형식으로 된 부분이 특이하다곤 할 수 있지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①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네, (가)에서는 '백화(白樺) 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라는 표현을 통해 자연의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나)에서는 '길'을 의인화해서 '길'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에서는 그를 '수선'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②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먼저 (다) 작품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와 (나)는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아요.

③ 영탄적인 어조로 대상에서 촉발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 (가)에는 '아아'라는 영탄적 표현이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에는 영탄적 어조를 찾아보기 힘들죠?

④ 예스러운 종결 표현으로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가) 작품은 예스러운 종결 표현인 '~니라' 등을 사용해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작품은 예스러운 종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⑤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 (가) 작품은 '낙엽'과 같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다)는 '유월'이란 표현으로 계절을 알 수 있지만, 이를 시간의 경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④

— <보 기> —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밖'과 '안'을 대비하여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 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길에 대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① (가)는 '화안한 골 길'과 '백화 양상한 사이'를 통해, 화자가 여정 속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군.

→ 네, '화안한 골 길'과 '백화 양상한 사이'를 통해 금강산을 오르는 길에서 마주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② (가)는 '바다의 별들'과 '하늘에 별들'을 통해,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형상화하고 있군.

→ 화자는 '바다의 별들'을 묘사하고, 이것이 곧 '나의 하늘에 있는 별들'로 이어집니다 '나의 하늘'의 별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을 주관적 인상으로 형상화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나)는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 하고 있군.

→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말하면서 '길'을 자신들의 관점으로만 이해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에 대한 깨달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④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 '세상 사는 이치'는 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⑤ (가)는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에서, (나)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가)의 화자는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라는 부분에서는 자연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가, (나)의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라는 부분에서 길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24. (가),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⑤

① (가)의 '구월'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구월'은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시간이지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화자는 자연에서 고뇌하고 있지 않아요.

② (다)의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은 '당신'이 건네주신 수선화를 보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일 뿐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③ (가)의 '어젯밤'은 화자가,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은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가)의 '어젯밤'과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은 고독감과 무관합니다. (가)에서는 자연을 보면서 감상을 말할 뿐이에요.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은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전달하는 맥락이므로 고독감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④ (가)의 '오늘밤'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다)의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글쓴이가 지난날을 후회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

→ (가)의 '오늘밤'은 나의 하늘을 보는 시간이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의 '실비 오는 무더운 밤'은 처음으로 그를 알게 된 날이지 지난날을 후회하는 계기가 아니에요. 그를 만난 것을 후회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죠.

⑤ (가)의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다)의 '아직 썰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글쓴이가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가)의 '인기척 끊긴 '한낮'은 화자가 금강산 산길을 가며 생각에 잠길 만한 시간이에요. (다)의 글쓴이는 '아직 썰 때가' 먼 '이 남은 밤'이라며 자신의 육보름 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실제로 합니다. 이를 보면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⑤

① 1연에서 '아득히', '왔더니라'를 반복하여, '첩첩한 산길'과 '머연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조응시키고 있다.

→ 네, 1연에서 '아득히', '왔더니라'를 반복해 산길에서 '머연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조응시키고 있습니다.

② 2연의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네, 화자는 자연을 보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외롭고 있고 있죠.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납니다.

③ 3연의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를 통해, 자연의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

→ 화자는 산길을 걸으며 주위 풍경들을 '오래여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이어 날선 봉우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④ 3연의 '홀 홀 홀', 4연의 '싸아', '호르르'와 같은 표현으로,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 네, '홀 홀 홀', '싸아'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⑤ 5연의 '동해안'과 6연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동해안'에서 '산장'으로 장소가 이동된 것은 맞지만 화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자연을 지향하는 태도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26. [A]~[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① [A]에서 '길'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는 진술의 구체적인 양상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에서 '길'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구체적인 양상이 [B]에서 '허리를 동강 내어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② [B]에서의 경험을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 [B]에서 사람들이 겪는 경험들을 [C]에서 '사람들'은 슬기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③ [C]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인지를 [D]에서 밝히고 있다.

→ [C]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는 [D]에서 말하는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D]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④ [E]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은 [B]와 대비되고 있다.

→ [E]에서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하다고 했어요. 이것은 '길'이 자신이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땀을 식히게도 하'는 것이지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길'의 모습입니다.

⑤ [F]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는 [A]의 '사람들'의 태도와 대비되고 있다.

→ [F]에서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었죠. 반면 [A]의 '사람들'은 아직 '갈'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태도가 대비되고 있어요.

2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 <보 기> —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이 수필에서 글쓴이는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이라면,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로 그려진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①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자는 자신이 편지의 수신인이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겠군.

→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작품이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작성해서 자신이 수신인이 된 것 같은 효과를 주고 있어요.

②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가슴의 병'을 얻은 여인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으로 볼 수 있겠군.

→ 네,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가슴의 병'을 얻은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께 들려드리고 있어요.

③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것은 삶의 양면성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군.

→ '육보름' 이야기는 글쓴이의 경험을 '당신'께 들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은 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④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 오'는 '새악시 처녀들'의 행동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일시적으로 용인된 것이겠군.

→ '새악시 처녀들'이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 오'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작품에서는 복을 가져오겠다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용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⑤ '자갈자갈', '끼득끼득'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 '새악시 처녀들'의 '허물없는 즐거움'과 쾌감을 느낄 수 있겠군.

→ 네, 이런 음성 상징어들을 활용해 '새악시 처녀들'의 '허물없는 즐거움'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8~31]

<보기>가 있어요. 바로 읽어 봅시다!

〈보 기〉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다. ‘나’의 겨드랑이에 돋은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그로 인한 밤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작품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과 함께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겨드랑이에 돋은 파마늘이 주는 통증’, ‘산책’ 모두 ‘자유’를 지향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등장한다면 꼭 자유를 떠올리면서 읽어야겠습니다. 이게 인물의 심리·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자유를 향한 의지는 강해지고, 이때 문제가 생기기도 한대요. 역시나, 관련된 사건이 등장한다면 체크합시다.

그런 일이 있는 지 한 달쯤 지나니 내 겨드랑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대강 드러났다. 파마늘은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솟구친다는 것. 방에 있으면 쭈시고 밖에 나가면 찢은 듯하다는 것. 까닭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 의사는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는 내 겨드랑은 멀쩡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파마늘은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연이틀을 쭈시다가 하면 한 일주일 소식을 끊고 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새운다는 것은 못 할 일이었다. 나는 제집이면서 꼭 도적놈처럼 뜰의 어느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주인공의 겨드랑이에 파마늘이 솟구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요구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기>에서 본 내용이 그대로 제시되고 있어요.

② 인물의 심리·태도 이해하기

‘나’는 겨드랑이의 파마늘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 하

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 고통이 없어지기에 주인공은 뜰의 어느 구석에서 밤을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밖에 나가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결국엔 ‘자유’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겨드랑이의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이고, 그 요구를 충족했을 때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즉, 자유를 지향하는 인물의 태도를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생활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견디다 못해서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 보았다.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 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는 아주 깨끗이 편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곧 짐작이 갔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내가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요당하게 되는 시간이 행정상의 통행 제한의 시간과 우연하게도 겹치는 점이였다. 고민했다.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2시부터 4시까지 모든 시민은 밖에 나다니지 말기로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소형(小型)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은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인물의 심리·태도 이해하기

계속 뜰에서 밤을 지내던 주인공은 답답해서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역시나 자유를 갈망하는 태도를 확인합시다!

②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작중 상황은 ‘통행 제한’이 있던 시기네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는 통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억압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죠? 네, 자유를 억압당한다는 것이 곧 고통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나’는 위에서 말했듯 자유를 지향합니다. 그게 담을 넘는 행위에 깔린 인물의 심리이자 태도입니다.

③ 사건 이해하기

사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나’가 담을 넘어서 나가는 사건은,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담을 넘는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사라지고 편안해지는 것이예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겨드랑이에 파마늘 같은 것이 돋으면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곤 한다. ‘나’는 밤 산책 중 종종 다른 사람들과 마주친다.

오늘은 경관을 만났다. 나는 얼른 몸을 숨겼다. 그는 부산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닌*인 것을, 안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무튼 그런 인물임을 실감한 것이다. 그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변모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백치나 다름없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위에서 레닌과 김구를 같은 유(類)에 놓은 것만 가지고도 알 만할 것이다. 그런데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혁명가였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혁명가라고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간첩이래도 좋다. 나는 그 순간 분명히 간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은 역시 분명하였다. 도적놈이래도 그렇다. 나는 분명히 도적놈이었으나 분명히 도적놈은 아니었다. 나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 만해지는 듯싶었다. 이 맛을 못 잊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설사 내 겨드랑의 달걀이 영원히 가 버린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 반죽처럼.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그렇게 주인공은 밤마다 몰래 ‘산책’을 하게 됩니다. 몰래 산책하는 것이니 경관을 만났을 때 몸을 숨기겠죠? 그렇게 경관을 피해 은신처로 몸을 숨긴 상황입니다.

② 인물의 심리·태도 이해하기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레닌, 안중근, 김구와 같은 인물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유를 위한 혁명가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고통 때문에 ‘산책’을 했지만, 이제는 이 ‘산책’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향한 의지가 미약했지만, ‘산책’의 반복으로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의 내용은 계속 떠올리면서 읽어 주셔야 합니다!

기적(奇蹟). 기적. 경악. 공포. 웃음. 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 간질간질해 왔다. 나는 속옷 사이로 더듬어 보았다. 털이 만져졌다. 그런데 달임새가 심상치 않았다. 털이 괜히 뽀뽀하고 잘 묶여 있는 느낌이다. 빗자루처럼. 잘 만져 본다. 아무래도 보통이 아니다. 나는 바위틈에 몸을 숨기고 윗옷을 벗었다. 속옷은 벗지 않고 들치고는 겨드랑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실소하고 말았다. 내 겨드랑에는 새끼 까마귀의 그것만 한 아주 치사하게 찌끄만 날개가 돋아나 있었다. 다른 쪽 겨드랑을 또 들여다보았다. 나는 쿡 웃어 버렸다. 그쪽에도 장난감 몽당뱃자루만 한 것이 달려 있는 것이었다. 날개가 보통 새들의 것과 다른 점이 그 깃털이 곱슬곱슬한 고수머리라는 것뿐이었다. 흙. 이 놈이 나오려는 아픔이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 날개를 움직이려고 해 보았다. 킷바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참말 부끄러워졌다.

-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 레닌 : 러시아의 혁명가.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그렇게 ‘나’는 계속 밤 ‘산책’을 하고 있는데 겨드랑이가 이상해서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찌끄만 날개’가 돋아 있었어요. 주인공은 파마늘이 솟구치는 고통이 이 ‘날개’가 돋기 위한 아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날개’는 자유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날개가 잘 움직이지 않네요. 아직까지도 자유가 완전히 얻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② 사건 연결하기

먼저 주인공이 겨드랑이에 파마늘이 솟구치는 고통 때문에 뜰에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것을 참지 못해 결국 통행 금지를 어기고 담 밖으로 나가게 되죠. 자유를 향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예요.

그렇게 계속 밤 ‘산책’을 하면서 자유에 대한 의지가 점점 강해지죠. 결국 ‘날개’가 돋았지만, 그 ‘날개’는

말을 잘 듣지 않는 ‘날개’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사건들을 연결하면서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되는 과정을 잘 파악하셨어야 합니다.

#지문 총평

<보기>의 내용을 떠올리며 ‘자유를 향한 의지’를 중심으로 작품을 읽어야 합니다. 또, 늘 그랬듯 인물의 심리·태도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 또한 ‘자유’와 연결해서 읽어야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2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⑤

①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 시간의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지 않아요.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②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 거드랑이에 파마늘 같은 것이 돌아 밤에 산책을 하는 것을 반복하지만 서술의 초점이 분산되지는 않습니다. 주인공에 서술의 초점이 고정되어 있어요.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서술자가 바뀌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죠? 서술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공간의 이동이라고 본다고 해도 다른 인물의 시선으로 이를 서술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⑤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내적 반응을 중심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네, ‘나’의 거드랑이에 파마늘 같은 것이 돌아서 새벽 산책을 하는 등의 사건에 대해 ‘나’의 내적 반응을 ‘나’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2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① ‘의사’가 ‘나’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나’의 증상이 ‘의사’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네, ‘의사’ 앞에서는 ‘나’의 증상인 거드랑이에 파마늘이 돋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는 ‘나’의 이런 증상을 진단하지 못합니다.

② ‘나’는 자신의 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곤 했다.

→ 파마늘은 방에 있으면 솟구치는데 밖에 나가면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도적놈’처럼 집 틀의 어느 구석에서 밤을 지내게 돼요.

③ ‘뜰’에서의 ‘나’의 고통은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 ‘뜰’에서 ‘나’는 파마늘이 돌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보다는 고통이 덜할 것이예요. 하지만 방 안에서 살 수 없고 도적놈처럼 ‘뜰’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④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한다.

→ ‘페어플레이’는 ‘시민’이 정한 것이 아니라 관청이 정한 규칙이예요. 규칙을 만든 주체를 잘못 말하고 있는 선지입니다. 주인공은 그러면서 ‘페어플레이’를 지키면 고통 때문에 죽을 것이라며 규칙을 어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⑤ ‘혁명가’와 ‘간첩’은 ‘나’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과 비교해 보는 대상이다.

→ ‘나’는 ‘혁명가’와 ‘간첩’을 통해 자신이 밤 몰래 산책을 나오는 행동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들의 마음이 알 만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3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

㉠ 은신처, ㉡ 바위틈

- ㉠은 경관이 지나가 몸을 숨기면서 주인공이 레닌, 안중근, 김구임을 실감하는 공간이에요. ㉡은 주인공이 겨드랑이에 털이 만져져서 ㉡으로 가 뒤통을 벗어 날개가 돋았음을 알게 되는 공간입니다. 이것만 잘 파악한다면 답은 바로 보입니다!

정답 선지 확인하기

㉢ ㉠은 ㉡과 달리,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다.

오답 선지 확인하기

- ㉠ ㉠은 정신적 안정을, ㉡은 신체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다.
- ㉡ ㉠은 윤리적인, ㉡은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다.
- ㉣ ㉡은 ㉠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 ㉤ ㉠과 ㉡은 모두,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이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

— <보 기> —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다. ‘나’의 겨드랑이에 돋은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그로 인한 밤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작품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과 함께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만이 아니라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군.

→ 네, 현재 작중 상황은 ‘통행 제한’으로 산책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에 해당하죠.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가볍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파마늘’이 돋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상황을 보여 주는 동시에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하기도 하겠군.

→ ‘파마늘’이 돋을 때 주인공은 극심한 통증을 느껴요. 이는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다고도 볼 수 있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통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타당한 해석입니다. ‘자유’라는 포인트만 잘 잡았다면 힘들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③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겠군.

→ <보기>에서 처음에는 자유를 향한 의지가 명료하지 않았지만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된다고 했습니다. 산책이 처음에는 '공리적인' 목적(치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 했죠. 이것이 자유를 향한 의지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 의지가 심화된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그대로 언급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보기>에서부터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된다고 했는걸요.

④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날개'의 형상으로 바뀐 것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산책을 통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네, 작중 후반부에 파마늘이 '날개'의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고통이 이 '날개'가 돋기 위한 고통이었던 것이죠. 이를 <보기>의 내용을 적용해본다면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되는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⑤ '날개'가 '꿇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나'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차례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겠군.

→ 주인공은 밤 산책을 하면서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되었고 결국 '날개'가 돋게 됩니다. 하지만 '날개'가 돋긴 했지만 '꿇바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죠. 자유를 향했지만 그 자유를 제대로 퍼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어요.

[32~34]

(가)와 (나) 지문에 대한 <보기>입니다. 먼저 보고 갑시다

— <보 기> —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를,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 가며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화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어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는 유유자적한 삶을, (나) 또한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말하고 있어요. 주제를 제시해 주었네요. 바로 읽어 봅시다.

(가)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로다
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제1수>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화자는 ‘어부’의 생애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세’를 다 잊었다고 합니다.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서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굽어보면 천십 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주위에는 자연이 있으며 이 자연들이 ‘십장 홍진’을 가리고 있습니다. 속세를 의미하는 단어죠?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유유자적한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자연에서 밥을 먹고 고기를 꿰면서 즐겁게 사는 모습이에요. ‘일반 청의미’, 즉 이런 자연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없음을 아쉬워하고 있어요.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 이현보, 「어부단가」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화자는 ‘한운’과 ‘백구’를 보고 다정한 것이라고 하며 이들을 좇으며 살겠다고 합니다.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모습이에요.

(나)

때마침 부는 추풍(秋風) 반갑게도 보이도다
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 매고 벗을 불러
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 가자꾸나
흰 두건을 걸쳐 쓰고 소정(小艇)을 타고 오니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갠 하늘에 눈이 되어
석양에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갈잎에 닳 내리고 그물로

잔잔한 강물 속 자린은순(紫鱗銀脣)* 수없이 잡아내어
연잎에 담은 회와 향아리에 채운 술을

실컷 먹은 후에

태기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희황천지(羲皇天地)*를 오늘 다시 보는구나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 ② 시적 상황 파악하기

이 시의 화자 또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어요. 화자는 '벗'을 불러 같이 자연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어요. 물고기를 잡고 술을 마시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잠시 잠들어 뱃노래에 깨어 보니
 추월(秋月)이 만강(滿江)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문득 의심은 월궁(月宮)에 올랐는 듯
 물외(物外)의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도다
 청경(淸景)을 다투면 내 분에 두라마는
 즐겨도 말리는 이 없으니 나만 둔가 여기노라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 잊었도다
 아이야 달 들어라 만조(晩潮)에 띄워 가자
 푸른 물풀 위로 강풍(江風)이 짐짓 일어
 귀범(歸帆)을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잠깐 사이 날개 돋아 연일배 탄 신선된 듯
 연파(煙波)를 헤치고 월중(月中)에 돌아오니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
 치겠는가
 강호 흥미(興味)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 박인로, 「소유정가」 -

* 자린은순 : 물고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
 * 회황천지 : 북희씨(伏羲氏) 때의 태평스러운 세상.
 * 동파 적벽유 : 중국 송나라 때 소식(蘇軾)이 적벽에서 했던 뱃놀이.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화자의 정서·태도 이해하기

계속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자연의 경관을 보며 감탄하고 이런 생활에 만족하는 화자입니다.

#지문 총평

(가) 작품은 EBS 연계였기도 했고, 기출에서도 몇 번 나온 작품이에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용은 단순해요. 자연에 대한 만족감이죠. (나) 작품은 처음 본다 해도 '박인로'라는 사람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도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연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만 캐치하셨으면 됩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 ㉠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 ㉡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 ㉢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갠 하늘에 눈이 되어 석양에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 ㉣ 아이야 달 들어라 만조(晩潮)에 띄워 가자
- ㉤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치겠는가

① ㉠은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네, '~에 ~하고'와 같은 대구법을 사용해 자연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적한 분위기 또한 잘 나타냅니다.

② ㉡은 자연 경물을 '너'로 지칭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과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화자는 자연을 '너'라고 부르면서 좇겠다고 했어요. 자연을 좇는 삶, 즉 자연을 지향하는 삶을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③ ㉢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자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죠.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④ ㉞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아이야 닷 들어라'라고 명령형 어미를 사용해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는 않죠. '아이'에게 닷을 들라고 해 자연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지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연을 지향하는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⑤ ㉞은 유사한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 현재 자연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동파 적벽유'를 즐긴 인물과 비교하면서 화자의 삶에 대한 자긍심이 잘 나타납니다.

33.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③

① [A]에서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강호 자연에서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다.

→ [A]에서 화자는 달을 보면서 더욱 무심하다고 하고 있어요. 자연의 모습을 보며 욕심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달에게 기원하고 있지는 않네요.

② [A]에서 화자는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 달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죠. 화자는 단순히 달을 보며 욕심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③ [B]에서 화자는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에 놓임으로써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 네, [B]에서 화자는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강물 아래 잠긴 달 사이에 놓여 있어요. 이런 풍경 속에서 화자는 '월궁'에 오른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이런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④ [B]에서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다.

→ [B]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의 모양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⑤ [A]와 [B]에서 강호 자연에 은거한 화자는 달을 대화 상대이면서 동시에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 화자는 달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지 대화 상대나 위안의 대상으로는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②

〈보기〉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를,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 가며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화하고 있다.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흥진'으로 표현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며 '인세'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군.

→ 네, (가)의 '어부'는 '십장 흥진', 즉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②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이고,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는 자연 현상이라 볼 수 있군.

→ 먼저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이에요. '추풍'을 반가워하며 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풍' 봅시다. '강풍'이 짐짓 일어 '앞산이 뒷산 처럼 보인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만 보면 "흥취의 대상이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강풍'은 강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또 그 뒤를 보면 계속 강에서 배를 타며 흥에 취해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제대로 읽으셨어야 합니다!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화자가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군.

→ 네, '일엽편주'는 작은 배를 의미하죠. '소정' 또한 작은 배를 의미합니다.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음을 알려주는 소재로 볼 수 있어요.

④ (가)의 '녹류에 고기 꺾어'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통해 유유자적한 삶이,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 내어', '실컷 먹은'에는 뱃놀이의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군.

→ 네, '녹류에 고기 꺾어' 사는 삶은 어부의 삶의 일부와 관련되어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 내어', '실컷 먹은'에는 물고기를 잡고 먹는 상황들이 연결되어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고, (나)의 어부는 벗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를 통해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군.

→ (가)의 '어부'는 혼자 자연 속에 살면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죠. 그리고 (나)에선 벗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뱃놀이를 하며 만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자는 '술병 메고 벗을 불러' 어촌 놀이를 가고 있어요. 혼자 자연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벗들과 함께 뱃놀이를 하며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어요.